

사찰중심 '관광특구' 개발

문체부, 명승지 연계 17곳 지정 "수행 환경권 보존장치 필요" 문화포교 프로그램 개발해야

문화체육부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13개 도 17곳을 관광특구로 지정, 지방단체들이 유명사찰을 중심으로한 관광코스 개발을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가 지역사회의 재창조 기여와 함께 지역불교문화 저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사찰 문화포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 긴밀한 협의를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단체의 개발계획은 해당사찰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찰수행환경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백양사 교무 현목스님은 "관광객의 무분별한 출입은 수행환경을 해치는 주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사찰관광지구 개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도광선 기자>



○문체부는 '총장 부총장등이 나서서 북한주민을 돕기 위해 현금 및 쌀을 모으고 있다.'

北동포돕기 교계 '후끈'

조계종스님 보시금 성금 태고종 쌀보내기 운동 동국대 모금함 설치

이사위기의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교계의 움직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백양사, 한마음선원 등 사찰 스님들이 활동비와 보시금을 북한동포운동에 성금한데 이어 태고종이 '한가정 쌀'

1말 보내기 운동'을 펼쳐기로 했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학내 아이 집수대 및 식당 등에 모금함을 비치, 현금 및 쌀 등을 접수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 80여 단체는 '겨레사랑 북한동포돕기 대구경북운동본부'를 결성, 3억원목표 모금운동을 벌이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소속 회원사찰에서도 북한동포들의 살상을 알리는 플래카드 설치 및 사진전을 열고하고 있다.

조계종, 옥수수 북 전달 5월초 중국경유 신의주에

조계종(총무원장 원주)은 13일 북경 개성식당에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 세 차례 실무회의를 갖고 식량(옥수수)을 전달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능관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심상련 조분원서기장과 만나 중국의 단둥에서 북한의 신의주까지 육로전달 키로했다"고 밝혔다.

한편 월주스님 방북의 건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지도부 성명전

총무원·종회의원모임 이견 심화

중앙종회의원들의 모임이 16일 총무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낸데 이어 총무원도 17일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해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내용의 반박 성명서와 선봉사 수입·지출 내역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주)은 성명서를 통해 "불공익을 앞두고 개인의 이해에 집착하여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해치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시키는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안타깝다"고 일축했다. 또 선봉사 직영사업운영에 대해 "관련 회계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주)은 성명서를 통해 "불공익을 앞두고 개인의 이해에 집착하여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해치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시키는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안타깝다"고 일축했다. 또 선봉사 직영사업운영에 대해 "관련 회계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주)은 성명서를 통해 "불공익을 앞두고 개인의 이해에 집착하여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해치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시키는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안타깝다"고 일축했다. 또 선봉사 직영사업운영에 대해 "관련 회계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기도할 줄 모른다며 걱정하는 스님을 많음을 많이 들었다. 그저 "빚기 달라"고만 기도한다는 지적이다. 나도 사실 처음에는 "주십시오"라 했다. 그런 신행태도를 고친 것은 바로 간절한 참회기도의 가피를 경험한 이후부터다.

흙어머니 손에서 외아들로 자라 늦게 결혼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지 3개월되면서 아직 갓덩이인 것이 뼈에 석회질이 끼있는 특이한 병을 알게됐다. 부모님이 다 그렇듯이 정말 대신 알고 싶었다. 또 의사에게 미구 매달렸다. 그러면서 그 순간 어린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가 싶었다. 아이가 병에 걸린 것도 모두 내 업(業)이라는 생각이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특별인

들었다. 비탄 끝에 나는 손을 놓은 것이다. 큰스님들 처럼 도(道)의 경지는 아니지만 끝까지 할수있는 내 마음이 그렇게 평등으로 이끌었다. 그때부터 참회기도를 시작했다.



남 일우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내 업장을 참회합니다." 나의 참회기도는 6개월이 계속됐다. 아이의 담당의사가 놀라움과 함께 기쁨으로 "병이 다 나았다"며 축하해 주었다. 이후 나는 발견했다. 참된 기도에는 반드시 반

"자식 병 걸린것도 나의業"

성이 따랐다는 것을. 그것이 진술할수록 자기반성의 강도도 깊었다. 드러내기 싫스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하루 한차례 이상 반드시 참회기도를 한다. 순간순간이 경쟁으로 이어진 연가 생활은 알게모르게 잘못을 짓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참회문'은 이렇다.

"음식을 먹게 해주시는 분들, 그 덕분에 건강합니다. 그 귀한 인연으로 부처님 법을 받는 자제를 열도록 하였습니다"고한 뒤에 그때그때 양심에 걸리는 잘못을 되짚는다. 다만 법담을 찾거나 법구를 갖추고 하지는 못한다. 주로 잠들기 전에 하고 수시로 집, 차안, 일터에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28년을 해왔다. 내나름의 기도를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나와 집사님(김용림씨) 아들(남성진씨) 등 2대(代)에 걸쳐 세사란이나 텔레비전이나 내내다시 피 사는 삶이라 비교적 신빙이 쓰인다. 그럼에도 참회기도 덕분에 늘 행복을 느끼고 있다. <달린트>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어 http://www.buddhapia.com

강릉자비원생 '一人一技' 교육 19면

대장경 치목에서 제본까지 9면

아사자 늘고있는 북한 참상 17면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참가 안내

- 출발: 4월 26일(토) 저녁 10시 · 조계사 앞
- 안내: 장병국연구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 회비: 4만원(조식 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신정호)
- 입금후 현대불교신문사로 연락바랍니다.
- 마스크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 대흥사-불교 그리고 한국인의 문화
6월 29일 부석사-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영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주)영일여행사



도원스님



인홍스님

도원·인홍스님 잇따라 입적

조계종 원로회의의 의원 진재, 을 되새겼다. 당 도원대종사가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 대구 삼보사에서 열반한데 이어 14일 오전10시20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총재 원허당 인홍스님이 세수 90세 법랍 56세로 울산 석남사에서 열반했다. 한국불교 비구 비구니계의 큰 어른의 잇따른 입적에 교계는 애도와 함께 가르침

조계종총회 또 무산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계획되었던 조계종 제1백26회 임시총회가 성원이 달로 무산됐다. 96년도 결산감사를 결해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총회는 지난 1백25회 총회가 유회를 거듭한 끝에 사회단체에 이어 또다시 개최조차 하지 못했다. 이

로써 이번 총회는 개최도 못한 첫 총회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와관련 총회위원장 설경스님은 "최근 도원(원로의원) 인홍(전국비구니회 총재)스님의 입적과 부처님오신날 준비등으로 인해 참석율이 저조한것 같다"며 "향후 일정을 택해 총회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인터뷰 3면>

'97 문화 유산의 해 기념!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축소모형) 보급

'97 문화 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조형미와 온화한 미소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금동미륵 보살반가사유상을 소장용으로 축소 보급합니다.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반가사유상은 흔히 "미륵보살사유상" 혹은 "태자사유상"이라 하는데 이는 후세에 출현한 미륵보살이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고 깊이 고민하는 모습과, 출가전 부처님께서 '生老病死'의 의미를 사유하는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문화재중 여러점의 금동미륵보살 반가상이 있으나 그 대표적인 작품은 국보 제 78호와 제83호의 금동미륵보살반가상입니다. 전면의 단아한 모습과 더불어 아래로 길게 늘어선 천의 주름이 아름다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고전미와 현대미를 가미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였습니다.



코팅형(브론즈착색)



개 금형



골동품형

제품 사양

품명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재질 : 청동

가격 :

형태	규격	A형	B형
골동품형		230,000원	350,000원
코팅형		230,000원	350,000원

개금울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 규격(폭×높이) A형 11cm×26.5cm
B형 16cm×40.5cm

보급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2-1522, 737-8881
팩스 : (02)737-0697